

체면을 살리는 48가지 영어표현

단답형으로 하는 영어는 이제 그만
창피해 하지 말고 있어 보이는 표현으로 소통하자!

목차

모시는 글	3
질문에 대한 답을 모를 때	4
공손하게 거절할 때	6
잘못 말했을 때	8
당신의 머리속이 하얗게 될 때	10
당신이 이미 알고 있다는 사실을 전할 때	12
공손하게 행동하고 싶을 때	14
방해받고 싶지 않을 때	15
공감을 표하고 싶을 때	16
보너스: 의도는 알겠으나 하지 말아야 될 말	17
어떻게 영어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까	18

Copyright © 2014 by SplashEnglish.com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리뷰의 용도 외에 어떤 전자기기나 기계장치, 혹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 글의 전체 혹은 부분을 복제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모든 등장인물과 상황은 실제와 관계 없으며, 이 글에 예시된 모든 일, 이름, 지역, 기관, 실제 생존인물 혹은 고인과 비슷한 이름은 모두 사실과 관련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모시는 글

체면을 살리는 48가지 영어 표현 “48 English Phrase That Save Face”을 다운로드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종종 대화 중에 말문이 막히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럴 때는 초초하고 불안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이 책에는 이런 상황을 잘 대처할 수 있는 표현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스타일을 구기거나 다른 사람의 따가운 시선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이 책에 나오는 48가지의 표현으로 당신의 체면을 살릴 수 있습니다. “Save face” 는 체면을 살리다라는 뜻입니다.

이 책을 읽은 후에 영어로 대화를 유연하게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소극적이고 서툰 화자가 아니라, 믿을 만하고, 친근한 사람으로 비춰질 것입니다.

이 책은 다양한 상황별 표현 어구가 들어있습니다. 살면서 마주하게 되는 불안한 상황에 가장 잘 맞는 표현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책과 인연 맺게 된 독자 분들에게 감사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osh

www.splashenglish.com

질문에 대한 답을 모를 때

가끔 우리는 답을 모르는 질문을 받습니다. 알아도 100퍼센트 확신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I don't know"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쉬울지 모르지만 그렇게 대화를 끝내버리는 것은 항상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다음에 오는 표현을 이용하면 거짓말하지 않으면서 무식해 보이지 않고 대화에 충분히 참여하고 있다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 상황 : 대답에 대해 확신이 없는 경우

Josh: Why do you think most people quit going to gym after 3 weeks?

You: **This might not be the best answer**, but I think most people who quit after 3 weeks weren't serious to begin with.

조쉬 :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헬스장을 다니기 시작한지 3주 후에 포기한다고 생각해요?

당신 : **이게 대답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 생각에는 3주 후에 포기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부터 심각하게 시작한 게 아닐 거예요.

- ▶ 당신의 생각이 100% 정확하다고 말하지 않으면서도, 품위를 지키면서 대화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 상황 : 지식이 불충분할 때

Josh: Could you explain this grammar rule to me? I don't get it.

You: Sure, **I might not be the best person to ask about grammar**, but let me take a look at it.

조쉬 : 이 문법 좀 설명해 줄래요? 잘 모르겠어요.

당신 : **문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지만**, 한번 보도록 하죠.

- ▶ 조쉬에게 당신이 문법에 박식하지 않다고 알려면서도, 친절하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상황 : 대답이 정확한지 모를 때

Josh: Is it true that it's common for tiny spiders to crawl into our mouth while we're asleep at night?

You: I'm not sure, but **I think I've seen someone talking about that** on YouTube.

조쉬: 밤중에 자는 사이 작은 거미가 입으로 들어오는 일이 흔하다는게 사실인가요?

당신: 잘 모르겠어요. 근데 유튜브에서 **누군가가 그런 말을 한 걸 본 것 같아요**.

- ▶ 조쉬에 질문에 대해 입증하거나 논박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화를 계속 이어 나갈 수 있습니다.

* 비슷한 표현

I think I've heard of that before. (전에 들어 본 것 같아요)

I think I've seen something like that before. (전에 그런 말을 본적이 있는 것 같아요)

I think I read something about that on a blog. (어떤 블로그에서 읽어본 것 같아요)

I think I heard someone mentioning that yesterday. (어제 누군가가 말한 것 같아요)

* 마무리

자 이제 다음부터는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받았을 때,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하세요.

This might not be the best answer, but ~ (이게 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I think I've heard of that before. (전에 들어 본 것 같아)

I might not be the best person to ask, but ~ (내가 이 방면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은 아니지만)

공손하게 거절할 때

어떤 사람은 당신에게 하기 힘든 부탁을 합니다. 또 누구는 들 필요가 없는 조언을 하기도 합니다. 다음에 오는 표현을 쓰면 상대방의 체면을 세워주면서 거만하지 않고 공손하게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상황 : 하기 힘든 부탁에 대응하기

Josh: Do you have a minute? Could you please translate this 700-word essay from English to Korean?

You: **I'm sorry, but my hands are full at the moment.** Could you try asking Jennifer? If that doesn't work out, call me back on Saturday, and I'll see what I can do.

조쉬: 이거 700단어짜리 에세이인데, 시간 있으면 영어에서 한글로 번역 부탁할 수 있을까요?
당신: **미안하지만 지금 나도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제니퍼한테 물어보지 그래요? 만약 제니퍼가 안되면 토요일에 나한테 전화하세요. 그 때 내가 뭘 해줄 수 있는지 볼게요.

- ▶ "My hands are full"은 바쁘다는 뜻입니다. 대안책을 제안하거나 부탁을 뒤로 미루십시오.

* 상황 : 당신이 할수 없는 일을 부탁받았을 때

Josh: Could you help me with the design of my website?

You: **I don't think I'm the right person** for the job. If I can help you in any other way, just let me know.

조쉬: 웹사이트 디자인하는 거 도와줄 수 있어요?

당신: 이 일을 하기에 **내가 적당한 사람인지 잘 모르겠네요.** 다른 것이 필요하면 제가 도와 줄게요.

- ▶ 당신이 도울 수 있는지 도울 수 없는지 명확히 하십시오. 맺는 말은 긍정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상황 : 필요없는 조언을 받았을 때

Josh: I read your essay. I think you really should add more exclamation marks and emoticons in your essay.

You: **Thanks, I'll think about it.**

조쉬: 에세이를 읽었어요. 내 생각에는 감탄사나 감정적인 측면을 좀더 넣어야 할 것 같아요.

당신: **네, 감사합니다. 생각해 볼게요.**

- ▶ 누군가가 당신에게 필요 없는 조언을 할 때 그들의 생각을 인정하고 넘어가세요.

* 마무리

이제 예의있게 “No”라고 말하고 싶을 때, 이렇게 말해주세요.

Thanks, I'll think about it. (고맙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I'm sorry, but my hands are full at the moment. (미안합니다만 저도 지금 할 일이 많습니다)

I don't think I'm the right person. (제가 적절한 사람인지 모르겠네요)

잘못 말했을 때

대화 도중에 틀린 단어를 말하거나 의도치 않은 말을 했을 때 당황스러움을 느낍니다. 여기 실 수를 만회하는 적당한 표현이 있습니다.

* 상황 : 뜻하지 않는 말을 했을 때

You: I hate children.

Josh: What!?

You: No, I don't mean that I hate them. **I meant to say that** children are annoying because they constantly seek attention.

당신: 나는 아이들이 싫어요.

조쉬: 뭐라고요!?

당신: 아니, 아이들을 싫어한다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끊임없이 관심을 원할 때 짜증스럽다는 뜻이었어요.

* 비슷한 표현

What I meant to say is that, children are annoying. (제 말은, 아이들이 짜증스럽다고요)

Sorry, that was the wrong word. I don't hate them. I just find them annoying.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 말했어요. 아이들을 싫어하지 않아요. 그저 짜증스럽다는 말이었어요)

That didn't come out right. I meant to say that children are annoying. (말이 잘못 나왔네요.)

아이들이 짜증스럽다는 말이었어요)

That's not what I meant to say. (그 건 제가 하려던 말이 아니에요)

- ▶ 제대로 말하지 못한 것을 인정하고 다시 고치십시오.

* 상황 : 앞서 한 말에 대해 설명이 필요 할 때

You: I wanted to eat cereal. Then my mother was sad. I was in the kitchen. I wonder why.

Josh: I'm not sure what you're talking about.

You: **Let me rephrase that.** When I went to the kitchen to get some cereal, I saw my mother sitting there with a sad look on her face. I wonder why?

당신: 시리얼을 먹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슬퍼하셨어요. 나는 부엌에 있었는데 왜 그런지 몰랐어요.

조쉬: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군요.

당신: **다시 이야기 할게요.** 내가 부엌에 시리얼을 먹으러 갔을 때 어머니가 앉아서 슬픈 표정을 하고 계신 것을 봤어요. 무슨 영문인지 몰랐어요.

* 비슷한 표현

Let me say that again. (다시 이야기 할게요)

Let me put it another way. (다시 한번 다르게 말해 볼게요)

Let me clarify what I just said. (방금 한말을 분명하게 말해 볼게요)

- ▶ 다시 설명하기 전에 이와 같은 말을 하면서 생각할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이야기를 할 때 상대방이 당신에 대해 잘못된 인상을 가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잘못 말했을 때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다시 고쳐 설명하세요.

I meant to say ~ (내 말 뜻은)

It didn't come out right. (말이 잘 못나왔어요)

Let me rephrase that. (다시 설명할게요)

Let me put it another way. (다시 한번 다르게 말해 볼게요)

Let me clarify what I just said. (방금 한말을 분명하게 말해 볼게요)

당신의 머리속이 하얗게 될 때

말하는 중에 갑자기 당신의 머리가 하얗게 되는 듯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아무 생각이 안나거나, 무슨 말을 해야할지 기억이 나지 않을 때를 말합니다. 가끔 우리는 스스로가 혼란스러워하고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확실히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멘탈 붕괴”의 순간에 다음과 같은 표현을 사용해 보세요. 좌절감에서 벗어나 당황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 상황 : 단어가 떠오르지 않을 때

Josh: What is the name of the red, round fruit that starts with the letter “A”? You: Oh, I know. It’s... Umm... Agh, **it’s on the tip of my tongue!**

조쉬: A로 시작하는 빨갛고 둥근 과일 이름이 뭐죠?

당신: 아, 그거 알아요.. 음... **혀끝에서 뱅뱅 돌고 생각이 안나네요.**

- ▶ 어떤 것을 말하려는데 생각이 안날 때 “It’s on the tip of my tongue”라고 말하십시오.

* 상황 : 사람 이름이 생각이 안날때

Josh: Do you know the name of that teacher who teaches at SplashEnglish.com?

You: Oh, I know him, but I can’t remember his name. **I’ll tell you when I recall it.**

조쉬: SplashEnglish.com에서 가르치는 그 선생님 이름 아나요?

당신: 네. 그 분 알아요. 근데 이름이 생각이 안나네요. **생각나면 말해드릴게요.**

* 상황 : 지금 당장 잘 모를 때

You: We should buy the new computer at ABC Electronics because they have the lowest price.

Josh: How much is a desktop computer at ABC Electronics?

You: I don’t have the actual numbers right now, but **let me get back to you on that later.**

당신: ABC전자에서 컴퓨터를 새로 구입해야 겠어요. 그 회사 제품이 제일 싸더라고요.

조쉬: ABC전자 데스크탑은 얼마인가요?

당신: 확실히 얼마인지는 정확히 몰라요. **나중에 다시 알려드릴게요.**

- ▶ 상대방에게 다시 알려준다고 말하는 것이 친절합니다.

*** 상황** : 주제를 벗어나거나, 말하는 도중에 혼란스러울 때

Josh: What is the best way to save the environment?

You: You could recycle plastic, or save electricity and water. But the best way to save the environment and go green is to reduce carbon dioxide by... I'm sorry, **I lost my train of thought**. I'll let you know when it comes back to me.

조쉬: 환경을 보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죠?

당신: 플라스틱을 재활용하거나 전기와 물을 절약할 수 있겠죠.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방법이에요. 그 방법은... 죄송해요. **제가 생각의 흐름을 놓쳤어요**. 생각나면 다시 말해 줄게요.

- ▶ "I lost my train of thought"(생각의 흐름을 놓쳤어요)는 "I forget what I was about to say"(무슨 말을 할지 잊어 버렸어)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 마무리**

단어가 생각이 나지 않거나, 무슨 말을 하고 있었는지 잊어 버렸을 때 다음과 같이 말하십시오.

It's on the tip of my tongue. (혀 끝에서 뱅뱅 돌고 생각이 안나요)

I'll tell you when I recall it. (생각나면 다시 말해줄게요)

Let me get back to you on that later. (나중에 다시 알려줄게요)

I lost my train of thought. (생각의 흐름을 놓쳤어요)

당신이 이미 알고 있다는 사실을 전할 때

친구나 고객, 상사를 대할 때 당신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전달하는 일이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당신이 박식하고 믿음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상황** : 다른 사람에게 매사에 흰하다는 것을 알리고, 다시 상기시킬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리고 싶을 때 다음에 나오는 표현으로 대화를 이끌어 나가십시오.

Josh: I just wanted to reiterate that the error in the report your department made last month has caused some hiccups in our workflow.

You: Yes, **I'm aware of** the issue, and we are taking the best measure to solve it. Now, if you'll allow me, let me explain our procedure for X, Y and Z...

조슈: 반복해서 말하지만 지난달에 당신 부서에서 만든 리포트 오류로 인한 걸림돌로 일의 흐름이 막혔어요.

당신: 네,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자 이제 괜찮다면 X, Y, Z 절차에 대해 설명할게요.

- ▶ 미묘한 차이지만 "I'm aware of that"(그 것에 관해 인지하고 있어요)라고 대답하는 것은 "I know"(알아요)라고 말하는 것보다 훨씬 듣기 좋습니다. 전문적인 일을 할때 진지하게 비춰지길 원한다면 "I'm aware of."를 선택하십시오.

*** 상황** : 당신이 어떤 정보를 요청하거나 부탁을 하기를 원합니다. 부탁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말하여 상대방이 당신과의 정보 공유를 편안하게 느끼도록 합니다.

"I heard that your branch office hired three new employees. Could we get their names?"

(당신이 속해 있는 지부가 신입 사원을 세 명 뽑았다고 들었어요. 그 사람들의 이름을 알 수 있을까요?)

"I heard"(~을 들었어요)는 너무 가볍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말하세요.

"**We were notified** that your branch office hired three new employees. Could we get their names? It would help us keep our database up to date."

(당신이 속해 있는 지부가 신입 사원을 세 명 뽑았다고 우리가 **통지 받았어요**. 그 사람들의 이름을 알 수 있을까요? 데이터베이스를 업데이트 해야 되서요)

비즈니스에서 사람들은 종종 "I"대신에 "We"를 씁니다. 팀원이 당신 한 명 뿐이라도 말입니다. 당신에게 지워지는 책임이 경감될 것입니다.

*** 상황** : 누군가가 당신이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이야기를 들으며 시간 낭비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Josh: Did you know that Taeji's ex-wife had an affair? It was a sunny day when Taeji was on his way to a concert...

You: Yes, **I heard about that**. It was a big surprise to everyone, and I'm sure it wasn't easy for Taeji. I hope he's over it now.

조슈: 서태지의 전 부인이 불륜한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서태지가 콘서트로 가는 어느 화창한 날에...

당신: 네, **그 이야기 들었어요**.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랄만한 일이었어요. 서태지에게도 쉬운 일은 아니었겠죠. 서태지가 이제는 잊어버렸으면 좋겠네요.

▶ 상대방이 말하는 것 만큼의 강도로 강하게 말하십시오. 대화내용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말하십시오.

*** 마무리**

상대방에게 당신이 알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주고 싶을 때, 다음과 같이 말하십시오.

I'm aware of ~ (나는 인지 하고 있습니다)

We were notified that ~ (우리는 통지 받았습시다)

We were informed that ~ (우리는 통지 받았습시다)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를 다시 하지 않도록 하려면 다음과 같이 말하십시오.

"I heard about that"(그 이야기 들었어요) 그 다음 당신의 견해를 공유하거나 그 이야기의 결론을 내십시오.

사람들이 당신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모릅니다. 상대방에게 당신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말하는 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공손하게 행동하고 싶을 때

한국에서는 상사나 윗사람이 떠날 때 엘리베이터나 차까지 배웅해주는 것이 일반적인 비즈니스 관례입니다. 한국 문화에서 이러한 행동은 손윗사람에 대한 존경과 공손함의 표시입니다. 그러나 서양에서는 차를 같이 타지 않는 이상 상사의 차까지 아무 말없이 따라가는 것은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배웅하거나,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커피나 밥을 사주는 일이 자연스럽게 때문에 사전에 아무 말없이 해도 괜찮지만, 서양에서는 항상 그렇지 않습니다.

영어로 말 할때,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무슨 일을 할 것인지 말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따라서 상사를 엘리베이터나 차까지 배웅할 경우에는 이렇게 말하십시오:

“Let me walk you to the elevator.” (엘리베이터까지 배웅해 드릴게요)

혹은,

“I’ll walk you to your car.” (차까지 배웅해 드릴게요)

아무 말 없이 배웅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배웅할 때 대화를 하면서 가십시오. 커피를 사줄 때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Let me buy you a coffee. It’s on me.” (커피 제가 살게요)

신입 사원에게 기록보관소가 어디 있는지 보여 줄 때, 이렇게 말하세요:

“I’ll walk you to the archive room. It’s this way.” (기록보관소가 어디있는지 보여줄게요. 이쪽이에요)

다음과 같이 말해도 좋습니다.

Let me get you some water. (제가 물을 가져다 줄게요)

I’ll hail you a cab. (택시를 불러 줄게요)

* 예외

애인과 데이트할 때는 이런 말을 항상 해야 할 필요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Let me hold the door for you”(제가 문을 열어줄게요)라고 말하고 나서 행동하는 것은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문을 열어주십시오.

방해받고 싶지 않을 때

어떤 일에 집중할 때 먼저 중요한 것부터 처리하고 싶을 것입니다. 동료가 중요하지 않은 일로 당신의 일을 방해하는 일보다 끔찍한 상황은 없습니다. 다음에 오는 표현은 시간을 낭비하기 전에 공손하게 “No”라고 말하는 방법입니다.

*** 상황** : 동료가 당신의 책상으로 와서 잡담을 시작할 때

Josh: Hi there! How are you doing? Did you see the football match yesterday?

You: Hi Josh, **I'm in the middle of something.** But what's up?

조쉬: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어제 축구 경기 봤어요?

당신: 안녕하세요, 조쉬. **지금 일하는 도중이에요.** 그런데 무슨 일이죠?

▶ 긍정적인 말로 끝을 맺으십시오. 그러나 당신이 바쁘다는 것은 알려야 합니다.

*** 상황** : 누군가에게 전화가 왔을 때

Josh: Hey! What have you been doing these days?

You: Hi, Josh! It's good to hear from you. **I don't mean to be rude, but actually I'm in the middle of something. Can I call you back later?**

조쉬: 여보세요, 요즘 뭐하고 지내요?

당신: 안녕하세요, 조쉬. 반가워요. **무례하게 하려는 뜻은 아니지만, 지금 제가 일을 하는 도중이에요. 나중에 다시 전화할래요?**

▶ 양해를 구하고 다시 전화해 달라고 말하십시오.

*** 비슷한 표현**

I don't mean to be rude, but right now I'm pressed for time. Could you make it quick?
(무례하게 하려는 뜻이 아니지만 지금 일하느라 시간에 쫓기고 있어요. 짧게 말해 줄래요?)

우리는 하루에 집중과 시간의 양이 제한되어 있어요.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정중하게 “No”라고 말하십시오.

공감을 표하고 싶을 때

당신이 말하고 있는 사람이 불만스러워하거나 화가 난다 던지, 혹은 슬퍼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정적 성향에 영향을 받아 자신까지 맥이 빠지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대신 상대의 기운을 북돋아주거나, 공감해주면서 친절하게 대응해주고 싶을 것입니다.

* 상황 : 불만을 공유할때

Josh: My boss never gives me the recognition I deserve!

You: **I feel for you. I'm in the same boat.**

조쉬: 내 상사는 나를 절대 인정해주지 않아요!

당신: **저도 그 기분 알아요. 우리는 같은 처지에요.**

또 다음과 같이도 말할 수 있습니다:

I know what you mean. (어떤 뜻인지 알아요)

That happens to me too. (나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He's often like that. (그 상사가 종종 그래요)

* 상황 : 불만을 공유하지 않을 때

Josh: My clients bother me with so many demands!

You: **That must really be frustrating.**

조쉬: 내 고객들이 요구가 너무 많아서 힘들어요.

당신: **정말 답답하겠네요.**

공감을 표하기 위해 또 다음과 같이 말해보십시오:

I totally understand. (전적으로 공감해요)

I know. (나도 알아요)

I'm sorry to hear that. (정말 유감이에요)

Things will get better. (다 잘 될거예요)

Cheer up. (힘내세요)

Look on the bright side.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 ▶ 다른 사람과 공감을 한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부정적인 감정으로 인해 자신의 기분까지 가라앉게 하지는 마십시오.

보너스: 의도는 알겠으나 하지 말아야 될 말

* As I told you before ~ 전에도 말했듯이

“As I told you before”(전에도 말했듯이)라고 거의 항상 말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시기 적절할 때에만 쓰이는 말입니다. 전에 언급했다는 사실을 확실히 주의 시켜야 할 때만 말하십시오. 이 말을 남용하면 듣는 이가 거북하게 느끼고, 오용하면 거만하게 들립니다. 아래에 나오는 문장을 보십시오.

“As I told you before, I have a trip to Hawaii next week, so I won’t be able to attend your birthday party.”

(전에 이야기 했는데 내가 다음 주에 하와이로 여행을 가거든? 미안하지만 네 생일 파티에는 갈 수가 없겠네)

이 문장이 조금 거만스럽게 들리지 않습니까?

전에 여행에 관해 말했더라도, 다시 처음으로 말하는 것처럼 친절하게 말하십시오. 듣는 이가 기분이 나쁘지 않도록 하십시오.

“I have a trip to Hawaii next week, so I won’t be able to attend your birthday party. Sorry.”
(다음 주에 하와이로 여행을 가서 당신의 생일 파티에 참석하지 못할 것 같아요. 미안해요)

* As you can see in my resume ~ 제 이력서에서 볼 수 있듯이

이같은 말을 취업 면접 때 했던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말을 하자마자 세 명의 모든 면접관이 이력서를 보기 시작했고, 정작 그 학생에 대한 관심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면접할 때 이 말은 하지 마십시오. 면접관들이 당신의 이력서에 대해 자세히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면접관들에게 당신의 이력서를 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대신 흥미로운 이야기를 통해 면접관이 당신에게 집중할 수 있고 당신을 원하도록 하십시오. 취업 면접은 인사 부장에게 자신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자리입니다. 자격 사항을 체크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어떤 회사에 재정 담당관을 지원할때, 다음과 같은 말은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As you can see in my resume, I was the beer drinking champion at my university for four consecutive years.”

(저의 이력서에서 볼 수 있듯이, 저는 대학교 4년 연속 맥주 마시기 대회 1등이었습니다)

면접관들이 당신의 이력서를 다 기억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당신의 이야기를 바로 시작하면 됩니다.

어떻게 영어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까

여러분이 이 책을 통해 즐겁게 배움의 시간을 가지고 체면을 살리는 48가지 표현을 갖추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떤 불안한 상황에서도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초조해 하거나 허둥지둥 하지 않고, 배운 표현들을 쓰기만 하면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영어를 더욱 유창하고 자신 있게 구사하는데 관심이 있다면, 일주일에 한번 관용구, 속어, 다양한 표현, 발음, 악센트 연습에 관한 수업을 받아볼 수 있는 [free newsletter](#) 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것을 통해 공개적으로 공유하지 않는 비법과 요령을 알려 드립니다.

이 책을 통해 도움받을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그들에게 이 링크를 전해 주십시오.

<http://splashenglish.com/phrases-that-save-face/>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책을 읽으면서 질문이나 의문 사항이 있으면 다음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josh@splashenglish.com

Josh